

드라마 풍작 KBS, '동백꽃...' 12관왕 활짝



공효진



김동욱



김남길

2019년 지상파 3사 연기대상에 큰 이변은 없었다. 대부분 인기작 기준 속 대상 수상자 윤곽이 이미 나와 있던 상태였고, 유일하게 풍작이었던 KBS도 이전 없던 결과였다.

KBS는 올해 미니시리즈 최고 시청률을 기록한 '동백꽃 필 무렵'을 비롯해 '왜 그래 풍상씨', '닥터 프리즈너', '조선로코-녹두전', '단, 하나의 사랑', '99억의 여자' 등 여러 히트작을 냈다. 고정 시청자가 탄탄한 주말극 '세상에서 제일 예쁜 내 딸'과 '사랑은 뷰티풀 인생은 원더풀', 그리고 일일극도 풍성했다.

정쟁한 후보들 가운데 대상의 주인공은 예상대로 '동백' 공효진이 됐다. 그에게는 생애 첫 드라마 연기대상이다.

소외된 사람들의 삶을 절절하면서도 담담하게 그려낸 '동백꽃 필 무렵'은 대상을 포함해 총 12관왕이라는 진기록을 세우며 명실상부 올해 최고의 작품으로 기록됐다. 이밖에도 '왜그래 풍상씨'와

KBS 공효진·MBC 김동욱·SBS 김남길 연기대상 여전한 나눠먹기 ... 부문별 쪼개기 시상 '눈살'

'조선로코-녹두전'이 쓸쓸한 성과를 거뒀다. SBS는 금토극의 원활한 안착을 도운 '열혈사제'의 김남길의 수상이 일찌감치 점쳐졌고, 실제로 그렇게 됐다. 'VIP', '황후의 품격', '해치', '닥터탐정', '배가본드', '의사요한', '배가본드', '스토브리그' 등도 선전했지만 '열혈사제'의 벽을 넘기에는 시청률이든 화제성이든 어려므로 역부족이었다.

MBC는 가장 기근이었다. 지상파 시즌제의 가능성을 보여준 '검법남녀'와 안판석 PD 특유의 연출이 돋보인 멜로극 '봄밤', 젊은 시청자를 사로잡은 '어쩌다 발견한 하루' 등이 있었지만 두 자릿수 시청률을 기록한 미니시리즈 자체가 없었다.

'검법남녀' 정재영이 그나마 대상을 받은 게 아니냐는 예측이 많았지만, 일부 제작진이 MBC에서 제작사로 이적하면서 정재영의 수상 불발에도 영향을 끼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물론 대상을 받은 '특별근로감독관 조장풍' 김동욱도 새로운 장르의 가능성을 보여줬다.

MBC 드라마 중 최고 시청률을 달성한 '검법남녀'는 오만석과 노민우가 각각 우수상과 신스틸러상을 타는 등 2관왕에 그쳤다.

올해 유독 기근이 심했던 MBC 드라마는 지상파 3사 중 가장 긴장감이 떨어진다는 혹평 속에서 시상식을 치렀다.

연예대상도 마찬가지로 특히 연기대상은 해당 방송사가 얼마나 많은 인기작

을 낳았는지에 따라 시상식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진다. 그러나 방송사와 관계없이 변함없는 공통점도 있으니, 바로 나눠먹기식 수상이다.

올해도 지상파 3사의 부문별 쪼개기 시상은 여전했다.

성별은 물론, 최근 크게 다를 바 없는 중편과 미니시리즈 장르를 나누는가 하면 심지어 요일별로 쪼개 시상한 방송사도 있었다. 여기에 무제한에 가까운 공동수상도 넘쳤다. 결국 시청자는 배려하지 않은 '그들만의 잔치'라는 지적을 올해도 피하지 못했다.

시청률 승자는 대상을 놓고 각축전이 벌어진 KBS였다.

1일 시청률 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방송한 MBC 연기대상 시청률은 7.1%-8.6%를 기록했으며 전날 방송한 KBS 연기대상은 10.2%-10.7%, SBS 연기대상은 5.3%-6.6%였다.

2019 최고 영화 '기생충'·드라마 '체르노빌'

영화 평가·추천 서비스 '왓차'

영화 평가·추천 서비스 '왓차'는 2019년 이용자들에게 가장 높은 별점 평가를 받은 영화는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 드라마는 '체르노빌'이라고 지난 31일 밝혔다.

간 영화제 황금종려상의 영광을 안은 '기생충'은 평균 별점 4.3점(5점 만점)이었고, 체르노빌 원자력발전소 폭발사고를 다룬 미국 드라마 '체르노빌'은 4.7점을 기록했다.

영화 중에는 2위 '어벤져스: 엔드게임'을 비롯해 '토이 스토리 4', '알라딘', '겨울왕국 2', '스파이더맨: 파 프롬 홈' 등 15위 안에 디즈니 영화가 5개나 이름을 올렸다. 왓차는 "관람객 수뿐만 아니라 평가에 있어서도 디즈니의 강세가 확인됐다"고 분석했다.

개성 있고 작품성 높은 한국 영화 역시 주목받았다. '기생충' 외에 김희애 주연 다량성 영화 '윤희에게', 이슈 메이커 '82년생 김지영', 여성 독립운동가들을 조명한 고아성 주연 '항거: 유관순 이야기' 등이 별점 순위에서 이름을 올렸다.

드라마 부문에서는 '체르노빌' 외에 '빅

리틀 라이즈 시즌 2', '킬링 이브 시즌 2' 등 순위 안에 미국 드라마가 7편이 오르며 강세를 보였다. 한국 드라마 역시 '동백꽃 필 무렵', '멜로가 체질', '눈이 부시게' 등이 상위권에 오른 가운데 넷플릭스의 '킹덤 시즌1'까지 15위 안에 들었다.

왓차는 또 올해 영화와 드라마에서 모두 여성 서사 콘텐츠가 강세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윤희에게', '82년생 김지영', '항거: 유관순 이야기' 같은 한국 영화뿐만 아니라 디즈니의 '알라딘', '토이 스토리 4', '겨울왕국 2'는 여성을 주인공으로 하거나, 여성 캐릭터를 재해석해 호평받았다.

드라마 역시 상위권에 오른 미드 '빅 리틀 라이즈 시즌 2'나 '킬링 이브 시즌 2'는 기존 장르물의 문법을 깨 새로운 여성 서사 장르로 호평을 받았고, 한국 드라마 '멜로가 체질', '눈이 부시게' 역시 여성의 이야기를 전면에 내세웠다.

이번에 공개된 순위는 올해 개봉하거나 방송, OTT(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해 공개된 콘텐츠 중에서 왓차에 등록된 평가 수 1만개 이상인 영화와 평가 수 8000개 이상인 드라마를 대상으로 했다.

연합뉴스

이서진, 1억 기부...새해 첫 아니 소사이어티 회원

배우 이서진(사진)이 1일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사랑의열매)의 고액기부자 모임인 아니 소사이어티에 1억원을 기부, 2020년 첫 아니 소사이어티 회원이 됐다.

이서진은 2008년부터 한국 해비타트의 홍보대사를 맡아 '이서진 빌드'를 통해 희망의 집짓기 봉사활동을 이어왔으며, 지난해에는 해당 단체의 고액 후원자 모임인 '더프리미어 골든해머' 회원으로 위촉됐다. 이외에도 재능기부나 자선 플리마켓 등 다양한 나눔 활동을 지속해왔다.

이서진은 "대중에게 늘 많은 사랑을 받아온 만큼 우리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미약하게라도 사회에 환원할 방법을 고민하다가 아니 소사이어티에 가입을 결심했다"며 "우리 주변에 마음과 몸이 아픈 사람들이 고통에서 벗어나 희망을 찾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서진은 "대중에게 늘 많은 사랑을 받아온 만큼 우리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미약하게라도 사회에 환원할 방법을 고민하다가 아니 소사이어티에 가입을 결심했다"며 "우리 주변에 마음과 몸이 아픈 사람들이 고통에서 벗어나 희망을 찾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TV프로그램 2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시간	KBS1	KBS2	MBC	KBC/SBS
00	00 KBS 뉴스 광장	00 걸어서 세계속으로 50 생방송 아침이 좋다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05	50 인간극장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나쁜 사랑	15 KBC 모닝 730 30 모닝와이드 3부
08	25 아침미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35 맛 좀 보실래요
09	30 KBS 뉴스	00 꽃길만 걸어요(재) 40 무한리플 샐러드	30 930 MBC 뉴스 45 기본 좋은 날	10 좋은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45 하자있는 인간들(재)	10 SBS 뉴스 20 KBC 생활뉴스 30 열린TV 시청자 세상
11	00 동행(재) 55 UHD 습터(재)	00 99억의 여자(재)		30 고향이 보인다
12	00 KBS 뉴스 12	10 우아한 그녀(재)	00 12 MBC 뉴스 20 두 번은 없다(재)	00 SBS 12 뉴스 25 만방 네트워크 뉴스 50 특목 보형설계
13	00 신년기획 사랑의 가족 50 KBS 재난방송센터(재)	5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재)	25 푸르기 식사교실 50 2시 뉴스 외전	55 닥터 365
14	00 KBS 뉴스 10 취라기 캡스 25 출동! 애니멀 레스큐 40 영동발달 공순이와 친구들 55 숲 속 친구 스토리즈			00 뉴스브리핑
15	10 한국인의 밥상(재)	00 KBS 뉴스타임 10 자동공부책상 위키 2 30 TV 유치원	20 호기심대장 카토 55 출발! 비디오 여행 스페셜	
16	00 사사건건	00 누가 누가 잘하나		00 KBC특집다큐멘터리 진돗개, 최고의 명견을 꿈꾸다 55 닥터 365
17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도그래피	00 도봉V-갤럭시웨폰 4호의 비밀 15 핑크퐁 원더스타 30 주간연예수첩	00 5 MBC 뉴스 25 생생 월드컵인부 스페셜	00 SBS 오뉴스 45 KBC 저녁뉴스
18	00 6시 내고향	00 KBS 경제타임 30 2TV 생생정보	25 오매! 전라도	00 집사부일체(재)
19	00 뉴스7 광주전남 40 한국인의 밥상	50 우아한 그녀	30 MBC 뉴스데스크	00 UHD 특집다큐멘터리 3부작 80일간의 유라시아 대장정
20	30 꽃길만 걸어요	30 글로벌24 55 제보자들	55 하자있는 인간들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
21	00 KBS 뉴스9			
22	00 신년기획 다큐 인사이드 55 더 라이브 35 UHD 습터 40 KBS 네트워크 특선 올댓뮤직	00 99억의 여자	05 지역MBC UHD공동기획 10부작 포구만리	00 맛남의 광장
23	30 KBS 뉴스 40 인간극장 스페셜	10 해피투게더 1~2부	05 문화콘서트 난장	50 접속! 무비월드 스페셜
24		40 스포츠 하이라이트	15 편애중계 최고의 승부 스페셜	45 나이트라인

EBS1

07:00 출동! 슈퍼웍스	13:00 다큐 시선	18:00 꾸러기 천사들
07:30 뽀로로와 노래해요	13:55 발견의 기쁨 동네책방	18:30 최고! 호기심 딱지
08:00 똥똥똥 유치원	14:45 다큐동화 달팽이(재)	19:00 미라클러스: 레이디버그와 블랙캣
08:30 미니특강대 슈퍼공룡파워	14:55 피피루 안전특공대(재)	19:30 생방송 판다다
08:45 방귀대장 뽕뽕이	15:10 출동! 슈퍼웍스(재)	20:00 4남매 쇼
09:00 고고다이노 공룡탐험대	15:25 트리푸름	20:30 자이언트 팽TV
09:15 울리 앤 로	15:55 미니특강대 슈퍼공룡파워(재)	20:50 세계테마기행 1~2부 <기차길 옆 동남아 - 하노이의 아침>
09:30 다큐동화 달팽이	16:10 예술아 놀자	21:30 한국기행 <겨울, 참 오지다 4부 거제 바다의 겨울 진격>
10:00 지식의 기쁨	16:25 페파 피그(재)	21:50 다큐 시선
10:30 한국기행(재)	16:40 똥똥똥 친구들-장난감나라의 비밀	22:45 심어즈:시대와 함께 울고 웃다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7:00 EBS 뉴스	23:35 발견의 기쁨 동네책방
11:20 세계테마기행(재)	17:20 똥똥똥 뮤직박스	
12:00 EBS 정오뉴스	17:30 고고다이노 공룡탐험대(재)	
12:10 팻하트	17:45 울리 앤 문(재)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월 2일(음 12월 8일 甲辰)

<p>36년생 나중엔 걸림돌로 작용한다. 48년생 이면에서 불씨가 움볼 수도 있다. 60년생 예기치 않은 어려움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라. 72년생 치밀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불을 보듯 뻔하다. 84년생 하고 싶지 않아도 해야만 하는 수고로움이 보인다. 96년생 장기적인 안목으로 공을 들이는 것이 합당하다. 행운의 숫자 : 80, 20</p>	<p>42년생 막연한 기대감을 갖고 있지는 않나 경계할 일이다. 54년생 행동해야 한다. 66년생 지출은 미래의 성장 동력이 될 것이다. 78년생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아야 할 때다. 90년생 제대로 인식해야 혼란에 빠지지 않을 것이다. 02년생 세심하게 살펴보아야 편할 수 있을 것이다. 행운의 숫자 : 99, 91</p>
<p>37년생 참신해야 된다. 49년생 중차대한 일이 일어나리라. 61년생 인과응보의 원리에 따른다. 73년생 사소한 것에서 비롯된 균열이 열려드는 바니 무뎠더라도 매끄럽게 처리하라. 85년생 허구한다면 실제의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97년생 짐작치 못한 불행에 예방할 수 있는 지혜가 절실하다. 행운의 숫자 : 82, 78</p>	<p>31년생 적시의 정지는 활력이 되어 줄 것이다. 43년생 판세를 좌우하는 요인이 보인다. 55년생 공과 사는 엄격히 구분되어야 한다. 67년생 변화의 원인이 발생한다. 79년생 포부를 펼쳐도 하등의 문제점이 없다. 91년생 기다리던 소식을 접하게 될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52, 59</p>
<p>38년생 모순된다면 양자 모두를 차치하는 것도 방법이다. 50년생 기대치와 동떨어져 있어서 결과에 허무할 수도 있다. 62년생 진솔했을 때 더 실용력이 있는 법이다. 74년생 상당한 고뇌가 따르며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86년생 미처 인식하지 못했던 바를 적나라하게 깨닫게 된다. 98년생 사소한 것에서부터 비롯되리라. 행운의 숫자 : 32, 42</p>	<p>32년생 상황 윤리에 따라라. 44년생 크게 한숨 쉴 일이 생긴다. 56년생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접하게 될 것이다. 68년생 까다로운 절차와 내용의 파악으로 인해서 고역이겠다. 80년생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돌이켜 볼 필요가 있다. 92년생 자신의 의지대로 되지 않아서 답답함을 느낄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83, 07</p>
<p>39년생 무시한다면 위험에 직면한다. 51년생 혼자 조처할 이 속 편할 것이다. 63년생 만사를 제쳐두고 제일 먼저 처리해야 할 일이 있으니 잊지 말고 조처하라. 75년생 얼마나 완벽하게 준비하여 왔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다. 87년생 눈 깜박할 사이에 전개 될 수 있다. 99년생 원래부터 존재했던 본질적인 문제로 보는 것이 옳다. 행운의 숫자 : 66, 13</p>	<p>33년생 아니다 싶으면 접어라. 45년생 자신이 될 만한 것이 보이니 놓치지 말라. 57년생 단단히 각오하고 있어야겠다. 69년생 효율성을 제고하라. 81년생 가볍게 처리할 문제가 아니니 심사숙고 해야만 한다. 93년생 시일을 끌어왔던 바가 완성되어가는 동세에 와 있느니라. 행운의 숫자 : 77, 82</p>
<p>40년생 조금만 더 나아가면 디딤돌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52년생 주변의 평가에 좌우되지 않는 주견을 가져라. 64년생 다방면으로 모색해야 할 때이다. 76년생 연쇄적인 작용을 일으키며 영향을 미친다. 88년생 직접적이지 않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00년생 이왕이면 다중적인 복합 기능이 경제적이다. 행운의 숫자 : 45, 58</p>	<p>34년생 구조와 형태가 특이할 것이니 작으 않아야겠다. 46년생 극복하느냐 못 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다. 58년생 두 경을 열어보면 실망할 것이다. 70년생 의외의 행운이 들어올 수 있다. 82년생 이익에 집착한다면 오히려 손해 보리라. 94년생 과격적인 조치로 인한 이득의 폭이 굉장하다. 행운의 숫자 : 34, 50</p>
<p>41년생 현재의 판세에 있어서 당해 사항 외에 여유분을 들 필요까지는 없겠다. 53년생 참고 기다리다만 취할 수 있겠다. 65년생 기다려 왔던 소식을 접하게 될 것이다. 77년생 돈 들어오는 소리가 멀리서부터 들려오고 있느니라. 89년생 안정된 마당이 되면서 집중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겠다. 01년생 여러 가지가 겹치는 형상이다. 행운의 숫자 : 31, 45</p>	<p>35년생 위험 부담을 안을 이유는 없다. 47년생 기사유역의 이치에 의해서 양지가 음지가 음지가 양지로 바뀌리라. 59년생 처음에는 불리할 수 있으나 결국에는 유리한 국면을 조성하라. 71년생 속 시원한 것보다 원만한 것이 가장 무난하리라. 83년생 배후에 있는 요소들을 살펴보자. 95년생 전적으로 신뢰하기에는 미흡하다. 행운의 숫자 : 79, 46</p>